

호화 납골묘 '매장' 시킨다

장사제도 개선위 구성

호화납골묘 제한 등 장사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불교계 납골 시설 및 문화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공동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하고,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시켰다. 추진위원회는 △진화경쟁적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사제도 개발 △매장 억제 및 화장·납골문화 정착을

친환경제도 개발 정책 제시 등 활동 교계 적극 참여 필요

위한 방안 마련 △화장장·납골시설 등 설치제한 지역 완화 △납골시설 모형개발 등 구체적 정책 제안 등을 주요 기능으로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추진위원회는 '장사제도개선추진단(단장 변철식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외관) 아래 '제도개선총괄분과위원회' '장사시설확충모형개발분과위원회' '장사시설설치지역완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과제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의철 사무관은 "각종 공청회 등을 거쳐 장사제도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골묘 허용 면적을 줄이거나 석재 등 부속물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납민이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객원교수는 "사안에 따라 불교계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사찰축제 기획 잘하면 '대박'

지자체, 중요한 문화콘텐츠 인식... 예산지원 1순위

문화살리기·관광참여·전문화 등이 관건

원효와 의상이 절을 세운 뒤 숲속 사람들이 전설을 남긴 벽지 산골에 위치한 경북 봉화 청량사. 이제 청량사는 더 이상 오지에 위치한 육지속의 섬이 아니다. 6년 전부터 국내 사찰로는 처음으로 시작한 '산사음악회' 덕분에이다.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면 지역민들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그래서 '봉화'는 플라도 '청량사'는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찰 문화 축제가 해당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홍보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방대한 예산을 지원받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문화기획사인 '메타 스튜디오' 측은 "크고 작은 지역축제를 포함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400여개의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올해 후원명칭을 허용하거나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한 지역 문화행사만도 50여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귀띔한다.

지역축제의 흥수 속에 지자체의 후원을 받는 사찰 축제는 김제 청운사 백련축제,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 영주 부석사 화엄축제, 양평 사나사 태고보우 추대의식 국사재현, 하동 쌍계사의 차(차)축제, 해남 미황사와 공주 영평사, 공주 갑사, 남해 화방사의 산사 음악회 등 20여개에 이른다.

최근 산사음악회를 중심으로 한 사찰 문화 축제가 주5일 근무제를 맞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는 곳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지난해 시작해 올해 5월 두 번째 행사를 치른 화엄축제의 경우, 날이 갈수록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과 함께 지원금도 늘고 있다.

실제로 첫 해에는 영주시에서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영주시의 후원금보다 경북도청, 문화관광부의 후원금까지 대략 7천만원 정도의 후원을 받았다.

그 비결은 축제 기획 단계부터 마당놀이 연출가 손진택(극단 미추대표)와 같은 영향력 있는 문화 전문가와 지역 문화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부석사 장건주인 의상대사를 기리는 장작극 '의상'과 다례제, 문학제, 탁본제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부석사 총무 도윤 스님은 "올해 6월 영주시에서 지역 축제에 대한 평가조사를 대학에 의뢰했는데 화엄축제가 그동안 영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인식축제를 제치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축제로 평가받았다"며 "영주시로부터 내년에는 예산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받았다"고 말했다.

태고보우 스님의 열반지 양행 사나사도 지자체의 협조가 활발하다. 지난해 10월 열린 산사음악회와 태고보우 국사 추대 의식 재현 행사에는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철도청에서 행사 당일 청량리에서 양평까지 특별 열차를 배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7월 31일 오후 두 번째 '숲속 생명 사랑 산사음악회'를 여는 남해 화방사 역시 남해군으로부터 총 예산의 4분의 1을 지원받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찰 지역축제는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돼 사찰이 장소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열리는가 하면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 후원을 받아 사찰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 후원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더 많다. 초창기 의욕을 가지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 축제를 마련했던 사찰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회성 행사로 마치는 경우도 있다.

영주시청 문화관광과 곽형철 계장은 "지역축제는 짧은 시간에 해당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주목을 들이는 가장 큰 홍보수단"이라며 "특히 고즈넉한 산사에서 열리는 사찰 축제는 주5일근무제를 맞이해 관광적인 측면과 함께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jkim@buddhapia.com



열반의 미소... 나란히 친견하세요

국보 78·83호 특별전

7월 20일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78호(오른쪽)·83호 금동반가사유상 특별전시회'가 막을 올렸다. 80평 규모의 대형 전시실에는 두 반가사유상이 자리를 함께 열반의 미소와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다. 6~7세기 경에

조성된 이들 두 반가사유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1988년 '옛 조선총독부 건물'이전 개관기념전시 이후 16년만의 일. 국립중앙박물관의 경복궁시대 마감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특별전은 10월 17일까지 계속된다. 사진=고영배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은'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현혈이 최고 보시"

불국토 설립 10주년을 맞아 7월 20일 불사자, 주빈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혈병 심장병 어린이 돕기 현혈 행사를 열었다. 불국토 직원들이 현혈을 마친 뒤 현혈 증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친미희 기자

불교출판문화협의회

발족 준비위원회 가동

1990년대 초 결성됐으나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던 '불교출판문화협의회(이하 불출협)'가 '불교출판문화협의회(가칭)'로 발바꿈하고 출판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 불교출판사 관계자들은 7월 20일 현대불교 지하 사랑방에서 모임을 갖고 '불교출판문화협의회 발족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번 협의회 결성은 불교 출판사뿐만 아니라 서점, 필자, 디자이너 등 출판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를 포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준비위원회에는 민족사 윤창화 대표, 여시아문 조종규 부장, 조계종출판사 문종남 부장 등 10명이 선정됐다. 윤창화 대표는 "앞으로 출판물의 공동 기획과 홍보, 인터넷 사업, 영입 대행사업 및 물류 일원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spy@buddhapia.com

'할'

설악산 농부스님 40년 주경야선
일과 수행이 들어 아니겠
저 돼지... 구정물 먹고 살지만 세상에 회향...

도윤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그림·조태호

불교서적전문출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권자동 110-33
Tel: 02)737-0695
Fax: 02)737-0696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스님이야기

홀로 피었다가 홀로 지지만 그 향기만은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전해지는 들꽃같은 스님들 85명의 진솔한 수행일화

이 책은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사를 여과없이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님들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들의 다양한 수행 이야기가 감칠맛나는 문체에 녹아 있어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청정한 스님들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해 주는 힘이, 이러한 스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자들은 살 맛이 나고 희망을 갖게 된다.

- 현대불교신문 기사 중에서 -

책에 나오는 스님들 - 무소유의 관 스승 **법정 스님** / 20년 경회사의 **지유 스님** / 사찰안내의 '원효' **인담 스님** / 분별, 시시때때 **정호 스님** / 집학지도 떠나지도 않는 **현정 스님** / 열정의 인연운동가 **진만 스님** / 한결같은 인유-하심 **지필 스님** / 수행로사의 투철한 삶 **종필 스님** / 후학만 주지 **백성 스님** / '산 거지' 지쳐 **경우 스님** / 햇지 같이 사르한 **어연 스님** / 명선 처사 원선으로 돌본 **묘운 스님** / 옷 한 벌이 전 재산 **전공 스님** / 절경한 무술 고수 **대우 스님** / '가야산 호랑이' **경원 스님** / 냉정함과 따뜻한 조화 **종진 스님** / '화엄선장' 같은 고향수와 **중원 스님** / 중앙승가대 장강대 인가 앞길 **금계 스님** / 厘事 두루 밝은 **원아 스님** / 불교문학 발전 견인자 **해연 스님** / 생애나누기 실천교육 20년 **종실 스님** / 뜨거움 피, 절절한 가슴 **해도 스님** / 열한한 선지의 **교승 스님** / '뿌리깊은 나무' **종필 스님** / '공포의 목걸이' **경하 스님** / 절제 면 면면 **기도 법원 스님** / 태조유적지 편찬한 **학운 스님** / 가슴 뜨거운 소년의 **현담 스님** / 운문인들의 귀감 **홍봉 스님** / 운문도량 '지킴이' **일진 스님** / 주란 뚜렷한 노력의 **백현 스님** / 갈라 뛰어나고 재주 많은 **경안 스님** / 불호로 거침없는 말과 글 **지홍 스님** / 방랑과 갈등 **공부 스님** / '공부'로 승화 **활공 스님** / 해계, 결계 따르 없는 **일원 스님** / 이 시대의 '부부나 온다' **향산 스님** / '조선의 목련화' **환기 스님** / 소망에서 더욱 빛나는 **현봉 스님** / 자애로운 눈빛, 맑은 목소리 **효정 스님** / 따뜻한 마음, 맑은 강의 **일호 스님** / 장과분과, 일문지 계속 **금산 스님** / '불교문화유산 지킴이' **홍진 스님** / 나사면 '민사보통' **지홍 스님** / 농사짓고 공부하고 **진만 스님** / 별자의 슬픔, 고통 함께 **지홍 스님** / 사회변혁운동 앞장 **유복 스님** / '1등 포교사' **홍도 스님** / 전행적인 수행자로 일관 **서암 스님** / 남다른 문학적 재능 **현철 스님** / 전법제일 '부부나'의 후계 **현원 스님** / 군 포교 원진 **상광 스님** / 산계, 정승들과 교감 **효정 스님** / 언제나 따뜻한 수행자 **현미 스님** / 끝없이 좌공양 **우진 스님** / '이상적 도심포교' **계희 지혜 스님** / 미소 잃지 않는 '자비보살' **민호 스님** / 시시때때 같은 기성 **현근 스님** / 90세에도 어딘가 가서 **호명 스님** / 호기심처럼 넉넉한 **명성 스님** / 기도정진과 이타행 **행문 스님** / 명교를 인유으로 승화 **지유 스님** / 눈 호발으로 정진 **실승 스님** / 삶의 마스할 가르치 **준법 스님** / 오 뜻이 한 걸 **미산 스님** / 자상한 태아의 도반 **상복 스님** / 덕승산 가문의 계승자 **보미 스님** / 도시로 입성한 '만능인' **덕진 스님** / 수다사 '미숙대갈' **영수 스님** / 당당한 출가인의 표상 **취홍 스님** / 언제나 젊은 마음자리 **수암 스님** / 글씨가 온전하며 불사 **금강 스님** / 글썽, 육심, 시시 때때 **성진 스님** / 만행과 자살행의 조화 **효정 스님** / 마음까지 다 주는 **석두 스님** / 속명을 불명으로 **대석 스님** / 계묘를 하듯 읽는 **지산 스님** / 만년 매마더 길어지는 수행 **대웅 스님** / '봄'이론것도 내 **영호 스님** / '수행자의 여법' 보여준 **원바 스님** / 학문에 남다른 열정 **성원 스님** / 만년 매마더 손수루 더하는 **영각 스님** / '불사행사' **지문 스님** / 도심포교의 메달 **파주 스님** / 절친한 포교 **중요인** **준법 스님**